



## 第17回 發明教室 盛了

7月 13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7月 13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7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
- ...은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議應答...○
- ...을 통하여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洪載...○
- ...日 辨理士의 「發明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方法」에 대한 講議에 이어 成昌物產...○
- ...高昌岩사장과 起亞産業中央技術研究所 河正容차장의 成功事例 發表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晉州의 초경공예품 藺草人形

國內特許 98件, 外國特許 70件 획득



海外市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디어 商品중에 藺草人形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흔치 않다.

藺草人形의 專門 輸出業者인 發明人 高昌岩씨(사진·成昌物產 代表)는 지난

〈高昌岩사장〉

74年 세계 최초로 藺草人

形을 개발, 年間 100만달러가 넘는 外貨를 벌어들이는 發明人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이 發明品の 開發은 정말 우연치 않게 이루어졌다.

다다미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藺草를 내버리

는 것이 아까워 廢品을 활용할 수 있는 궁리를 하던중 藺草를 엮어 人形을 만들어 본것이 버젓한 輸出商品으로 히트를 치게 된것.

새로운 輸出商品 개발에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나라에 傳해 오는 傳說에 의하면 藺草는 產母가 出産할때 깔거나 옆에 지니고 출산하면 그 아기는 평생 무탈하고 大成하며, 심산유곡에서 수도할때 藺草로 사람 모양을 엮어 몸에 지니고 入山함으로써 잡귀와 잡념을 쫓아버리고 자신을 보호받아 道를 通했다는 吉草.

그래서인지 高씨는 藺草人形 개발로 國內特許 98件과 外國特許 70件을 획득했으며 出願중인 것만도 63件건에 달해 명실공히 藺草人形의 世界 第一人者로 부상했다.

또한 發明品으로서의 값어치를 인정받아 1982년 제11회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우수

발명상 수상을 비롯 제7회 관공 민예품 경진대회—농수산부장관상, 제17회 발명의 날 우수발명상 수상, 수출의 날 우수발명품 수출상—국무총리표창, '83우수발명창출 유공 상공부장관 표창, 83년 올림픽 관련제품 전시회 우수제품 개발상 수상, 1984년 4월 16일 제네바 국제수출유공자 수상 획득등國內外 권위있는 賞을 휩쓸기도 했다.

蘭草人形은 모자를 쓴 아가씨가 꽃바구니를 든 상태의 人形으로 천연원료인 蘭草로 만들어졌다. 흡사 화창한 봄날씨에 입마중이라도 나설 모습이다.

蘭草人形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人形의 소재 자체가 自然植物인데다 손으로 꼬아서 만들었다는데 우선 흥미를 돋운다. 여기에서 外國人들의 취향에 맞는 모자와 꽃바구니를 加味시켜 전반적으로 서구적인 멋을 풍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수요층들을 상대로 기프트 아이템이나 실내장식용으로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한마디로 蘭草人形은 원시와 현대를 잘 조화시켜 人間 스스로가 만든 고도의 物質文明에 쫓기다시피 生活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싱그러운 미소로서 위안을 주며 자연에 귀의하려는 인간의 향수를 달래주는 예술품이다.

高씨가 경영하는 成昌物産의 사시「世界第一主義」가 말해주듯 이 회사 전사원들은 輸出伸張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 執念의 結實 自動車尖端技術

—뉴욕國際發明展 大賞의 河正容씨—



〈河正容차장〉

第20回「發명의 날」을 맞아 錫塔産業勳章을 받은 發明人 河正容씨(起亞産業中央技術研究所 研究企劃室 次長)의 發明品은 오르막길에서 車를 出發시킬때도 뒤로 미끄러 지지않는 「역진제어장치」등 수종.

職務發明人인 河씨는 이들 發明으로 뉴욕國際發明展에서 大賞을 受賞하는등國內外의 棼棼한 發明展을 휩쓸어 世界的인 發明人으로 부상했다.

올해 나이 50세의 河씨가 發明과 인연을 맺은 지난 78년. 오랜 軍生活 끝에 늦게 入社해 끈질긴 執念으로 發明과 싸워이겨 고속으로 승진한 인물로 더 알려져 있다.

병기 장교로 20년간 근무하다 77년 소령으로 전역, 起亞産業(株)의 정비교본을 만드는 부서에 入社한 것이 78년.

이때부터 자동차 회사인만큼 차량 전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승용차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일단 정지한 뒤 다시 출발할 경우 항상 조금씩 뒤로 역진했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역진구조를 개선할 수 없을까하고 생각했다. 설계 도면이 그의 방을 가득 메울 정도로 역진제어장치 연구에 몰두, 80년 7월엔 혼자 힘으로 완성해 낸 「역진제어장치」기술에 대한 特許를 얻었다.

軍에서 가꾼 기술을 현직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는 河씨는 군에 근무할때도 몇가지 장비를 開發하여 현재도 오긴하게 쓰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 發明을 위해 河씨가 그린 設計圖만도 500여장. 집안이 온통 小研究室이 되어 가족들에게 미안했다는 河씨는 어릴때부터 고장난 시계·라디오·전축등을 뜯어보지 않고는 못배겼다고 회상한다.

『오토매틱에서는 역진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0%정도의 연료가 더들고 또 속력도 떨어지는 흠이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發明品은 이 같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河씨의 자랑.

현재 河씨의 發明品은 起亞産業의 일부 제품에 달아 현장 실습을 하고 있으며 곧 실용화될 것이라고.

河씨는 이 發明品 외에도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제동유로장치」 「자동차 제동제어장치」등 수많은 發明品을 가지고 있다. (※)